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’ 1R 오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 **홍정민, 김민선7, 조혜림, 박민지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14일(목) ~ 8월 17일(일) |
| 3 | 장 소 | 몽베르컨트리클럽 [가을(OUT) / 겨울(IN)]  |
| 4 | 주 최 | 메디힐, 한국일보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10야드-예선, 6,544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3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박지영, 이예원, 박현경, 방신실, 홍정민, 노승희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김민선7, 김민주, 정윤지, 박혜준, 배소현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이다연, 김아림, 안나린, 최혜용, 성아진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30분[2라운드] 11시 ~ 17시30분[3라운드] 09시30분 ~ 16시[최종라운드] 09시30분 ~ 16시 |

**◈ 조혜림, 1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 65타 \*공동 선두(1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36>

**Q. 경기 소감은?**

초반에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. 샷은 잘 맞았는데 경기 흐름을 잡지 못했다. 후반에는 빠르게 플레이하느라 연속 버디를 하는 줄도 몰랐다. 오히려 빨리 치려고 하니 마음이 편했고, 그 점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.

**Q. 오늘 잘 맞았던 부분은?**

퍼트가 굉장히 잘 들어갔다. 지난주 제주도에서는 들어갈 공이 다 돌아 나와서 걱정했는데, 오늘은 안 들어갈 것 같던 퍼트도 들어가서 재미있었다.

**Q. 코스에 대한 느낌은?**

이 코스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는데, 이번에는 잔디가 바뀌면서 드라이버도 멀리 나가고 아이언샷도 구르는 맛이 있어 좋았다.

**Q. 우승 경쟁에 임하는 각오는?**

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치려고 한다. 아직 3라운드나 남았고, 선두권에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, 내 플레이만 집중하며 자신 있게 플레이하겠다.

**◈ 홍정민, 1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 65타 \*공동 선두(1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)

**Q. 오늘 경기 소감은?**

영국을 다녀온 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특별히 기대하진 않았다. 오히려 기대를 안 해서 더 잘 된 것 같다.

**Q. 코스와 잘 맞는가?**

아직 확신은 없다. 한 번은 잘했고 한 번은 못 해서 반반이다. 그래도 오늘 잘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코스 쪽으로 기울고 있다.

**Q. 오늘 가장 잘된 부분은?**

퍼트가 잘 떨어져 타수를 쌓을 수 있었고, 예상치 못한 홀에서 샷으로 버디 찬스를 만들어 예상보다 많이 버디를 잡았다.

**Q.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?**

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기회가 오면 잡자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됐다.

**Q. 하반기 목표는?**

욕심나는 대회들이 있지만, 욕심은 체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기다리려고 한다.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고, 그때 우승하면 좋겠다.

**Q. 올 시즌을 치르며 느낀 점은?**

작년에 아팠던 경험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하다. 그로 인해 성장했다고 느끼며, 욕심도 많이 비우게 됐다.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경기하고 있다.

**Q. 남은 라운드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?**

이 코스는 그린의 결을 타는 편이라 샷 정확도를 높이면 퍼트 성공률이 올라간다. 세컨드 샷에 집중해 플레이하면서 버디를 많이 잡겠다.

**◈ 김민선7, 1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 65타 \*공동 선두(1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7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7)

**Q. 경기 소감은?**

큰 리스크 없이 경기를 풀었고, 버디 찬스에서 대부분 버디를 잡아 만족스럽다.

**Q. 코스와 잘 맞는 이유는?**

그린이 잘 받는 편이고, 경사가 크게 크게 나뉘는 코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코스는 내 스타일과 잘 맞는다. 강점 중의 하나가 코스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는데, 이곳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.

**Q. 첫날 좋은 성적을 냈는데, 우승에 대한 기대는?**

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싶다. 최근에는 우승 경쟁보다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다.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된다.

**Q. 올해 우승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을 꼽자면?**

이전에는 기회를 잡으려는 마음에 많이 긴장하고 떨렸다. 그래서 내 플레이를 하지 못했는데, 우승 경험을 하면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한다.

**Q. 예상 우승 스코어는?**

첫날 7언더파를 쳤으니, 20언더파 이상은 기록하고 싶다.

**Q. 우승을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?**

퍼트 세이브율이 지금처럼 좋았으면 한다. 기회를 많이 만들고, 실수를 줄이는 것이 우승에 가까워지는 비결이라 생각한다.

**Q. 이번 대회 목표는?**

최근 2주 연속 톱텐에 들었고, 감도 좋아 이번 대회도 일단은 톱텐 진입이 1차 목표다. 그리고 기회를 잘 살리면서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하고 싶다. 다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

**◈ 박민지,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공동 4위(1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772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772)

**Q. 경기 소감은?**

두 번째 홀에서 보기를 하며 마음이 아팠다. 그래도 하나씩 줄여가자는 생각으로 경기했고, 샷이 좋았다. 비가 와서 그린도 잘 받아줬고 파3홀마다 샷이 잘 됐다. 다만, 보완해야 할 점은 있다고 느꼈다**.**

**Q. 이 코스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데, 어떤가?**

이 코스에서 좋은 기억이 많다. 특히 우승했던 코스라 마음이 더 편하고 공략 방법도 기억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플레이했다.

**Q. 오늘 샷감이 좋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?**

가끔 감이 딱 맞을 때가 있다. 오늘도 샷이 잘 돼서 감사했고, 기회를 얻을 때 최대한 몰아치자고 마음먹었다. 다만 퍼트가 조금 아쉬웠다.

**Q. 통산 20승에 대한 부담감은?**

20승은 골프를 그만두기 전에 채워야 할 숫자 중 하나일 뿐이다. 우승에만 집착하기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,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승할 기회가 올 것이라 믿는다.

**Q. 올해 기대만큼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이유가 있을까?**

스스로도 많이 아쉽다. 예전에는 샷과 퍼트 모두 날카로웠는데, 지금은 그 날카로움이 좀 무뎌진 것 같다. 이를 다시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과제다. 오늘은 비교적 날카로운 경기였다.

**Q. 이번 대회 목표는?**

올해 최고 성적이 10위로, 10위만 두 번 기록했다. 이번 대회에서는 2~3라운드까지 5위 안에 들어가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을 노리는 것이 목표다. 그전까지는 최대한 상위권에서 버티면서 스코어를 줄이고 싶다.